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 김이태 「식성」과 한강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김재경*

차례

1. 들어가며
2. 시각과 인물의 인식단계
3. 음식과 성별권력의 상관관계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이태의 「식성」과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음식과 성별권력의 상관관계에 관해 살펴본 연구이다. 오늘날 음식은 단순한 일차적 섭취물만이 아닌 문화적 기호와 다양한 형태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특히 육식문화는 음식물의 획득과 손질과정이 공격적이고 강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상위와 여성하위의 구조로 이해되기도 했다. 음식문화사적으로 볼 때 육식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력자였다. 그리고 그 권력자는 최상위에 위치한 지배자나 가장(家長)인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이 구조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주인공들은 모두 여성이며 육식에서 채식으로의 식성변화 과정을 겪는다. 「식성」의 언니는 육식만을 선호하다가 육류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단백질로 상징되는 남성의 정액을 삼키고 난 후 육식거부자가 된다.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과거에 아버지가 개를 죽인 사건과 그에 대한

* 충북대 국문과 박사과정

죄의식이 현재 ‘꿈’을 통해 인식되면서 채식주의자가 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육식이 함의한 성별권력을 인식하고 육식위주의 식생활이 결국 폭력과 맞닿아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식성』의 언니는 육식을 선호했던 자신의 삶이 병적이었던 것을 알고 절로 들어가는 자기치유를 선택한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채식주의자로 변하면서 일탈행동을 하고 새를 몰아서 죽이는 자기파괴로 귀결된다. 이를 통해서 두 작품 모두 지배층의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부인하고, 여성성과 수평성에 대한 경의심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식성』과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점과 서술을 통해서 인물들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인물간의 인식 차이를 자크 라캉의 ‘시선’과 ‘응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제기 했다.

핵심어: 음식, 육식, 채식주의자, 시선, 응시, 권력, 정체성

1. 들어가며

인간에게 음식의 일차적 역할은 유기체로서 생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인간의 행위 속에는 이러한 일차적 역할 외에도 문화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 음식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국적성, 종족성, 연령성, 남녀의 성별, 종교성, 계급성 등과 관련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육식문화는 성별, 계급차별, 국가정체성, 식민정책, 인종이론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도처에 확산되어 있다.¹⁾ 오늘날 육식문화가 제반문제와 관련 맺게 된 이유는 육식하는 자 혹은 할 수 있는 자가 권력자였다는 음식문화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육식이 곧 힘이라는 등식은 지배계급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비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피라미드 구조로

1) 제레미 리프킨, 신현승 옮김, 『육식의 종말』, 시공사, 2002, 280~281쪽.

변해간 중세 봉건시대의 음식과 계급의 관계가 강화되었던 예²⁾는 이를 잘 보여준다. 육식은 상류계급의 특권이었으며 이는 농민들과 구분 지어 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육식과 계급의 노골적인 수직관계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육식과 권력의 상관성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육류소비는 남성과워와 여성하위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서양사회의 가부장적 파워는 육류 소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남자와 동물의 연관성, 그리고 여성들의 대상화와 하위관계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지배층의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부인하고 여성파워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음식과 권력의 관계는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이태의 『식성』과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육식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혹은 육식을 즐겨하다가 특정한 일을 계기로 식성과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식성』의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편중된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선호한 여성이다. 그녀는 주변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육식을 선호했는데 ‘미국 유학’을 계기로 육식거부자로 변한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가정주부인 아내(영혜)이다. 그녀는 육식을 즐겨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스스로도 육류를 재료로 요리를 잘 하던 여성이다. 그런데 ‘꿈’을 계기로 채식주의자로 변하게 된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육류로 상징되는 남성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다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육식에 대한 폭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볼 때 『식성』과 『채식주의자』는 폭력성과 부드러움, 권력과 순종, 육식과 채식,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갖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로이 스토폴, 강주현 옮김, 『권력자들의 만찬』, 넥서스BOOKS, 2005, 75쪽.

현재까지 진행된 『식성』과 『채식주의자』에 관한 논의는 평론과 단행본에 집중되어 있다. 김이태의 『식성』에 관한 논의들로는 인간의 과잉욕망을 공통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유승준은 『식성』의 언니를 현대인의 “끝모를 욕망의 식탐”³⁾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고 탐욕의 대상이 된 음식 문화에 대한 경계를 주장한다. 구자희도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과잉욕망을 문제삼고 있으며 나아가 생태위기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식성』은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식욕으로 환치시켜 타자화된 인간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소설”⁴⁾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음식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살핀 이들의 논의에 본고도 동의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육식과 성의 상관관계와 그를 통한 음식과 권력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관한 논의는 『식성』에 비해서 활발한 편이다. 한귀은⁵⁾은 『채식주의자』 연작을 외상의 서사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외상이 남편에 의해 일깨워지고 그것이 동물의 이중부정으로 드러나고 그로인해 절대적 타자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황도경⁶⁾은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공격성과 부드러움이라는 몸으로 이분화해서 나눈다. 그리고 아내가 고기를 거부하는 것은 짐승의 몸을 거부하고 둥근 모성적 몸을 갖고자 하는 의지라고 평하고 있다. 허윤진은⁷⁾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3) 유승준, 「기름기로 충만한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토약질」, 『사랑을 먹고 싶다』, 작가정신, 2004, 69쪽.

4) 구자희,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231쪽.

5)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vol.43, 배달말학회, 2008, 289~317쪽.

6) 황도경, 「푸른 꽃, 혹은 예술과 욕망의 시원」, 『2005년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5, 359~360쪽.

7) 허윤진, 「열정은 수난이다-채식주의자 해설」,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29~233쪽.

포함한 인간의 야수성을 감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육식과 폭력이 등가로 작용하고 따라서 육식을 문제 있는 행위로 인식한 위의 논의들에 본고도 동의한다. 그러나 위의 논의들은 「식성」과 마찬가지로 육식과 채식으로 이분되는 음식과 그에 따른 성별권력과 함수관계를 놓치고 있다.

「식성」과 「채식주의자」는 주인공인 여성들이 식성변화와 인식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점, 그 변화 원인에 남성이 자리하는 점 등의 공통분모를 갖는다. 본고는 그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식성」과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음식과 성별권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시각과 인물의 인식단계

「식성」과 「채식주의자」는 여동생인 ‘나’와 남편인 ‘나’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시점 즉 ‘본다’는 것은 단순한 지각행위는 물론 바라보는 자의 일반적 관심사, 이데올로기, 세계관⁸⁾ 등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주체의 형성, 혹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 목소리 즉 서술이다. 목소리는 사건과 존재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드러난 수단이나 화법으로⁹⁾ 시점과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 시점이 대상(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의식작용이라면 서술은 그 내용을 언어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서술행위는 언어화작용 이상을 넘어서 주석·평가·해석 등을 가하는 목소리를 지닐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시점과 서술이 서로 연관되는 방식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인물들의 행동을 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적

8)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학』, 민음사, 1999, 184쪽.

9) 위의 책, 185쪽.

인 인식들을 고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서술자의 시점과 인물의 시점이 충돌하게 된다.

「식성」과 「채식주의자」는 부수적인 인물인 ‘나’(1인칭 관찰자)에 의해서 서술이 진행된다. 이들이 주인공인 언니나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서술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시점, 서술 등에는 인식의 틀이 작용하며 이것은 인간 상호관계 속에 내재된 권력과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과 인식, 권력 관계를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라캉의 ‘시각예술이론’이다. 라캉은 ‘보기’의 범주를 시선(eye)과 응시(gaze)라는 개념들로 설명하며 그 틈새에서 주체의 분열과 욕망의 구조를 포착하고자 했다. 라캉에 의하면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거울을 바라보는 아이는 이미 자신의 육체에 대한 하나의 ‘상상적’상을 만들어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상 앞에서 아이는 이상적 자아에 사로잡힌다. 이상적 자아란 불완전하고 파편적인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완전한 모습으로 인식하는 허구적 자아이다. 이 단계에서의 ‘나’는 거울에 비친 상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시하는 나르시시즘적 형태를 지니며 타자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한다. 즉 그는 대상을 그저 보기만 할 뿐 대상 또한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시선의 교차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바라봄의 상태가 라캉이 말하는 ‘시선’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이 아니라 보여짐이 함께 하는 중첩적인 것이다. 보여짐을 강조하는 것이 라캉의 욕망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적 세계가 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시각적인 심층현상을 ‘응시’라고 칭할 수 있다. 이것은 ‘나’를 놀라게 하고 내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자신이 세상에 의해 보여짐을 의식하는 것으로 타자의식을 갖는 것이다.¹⁰⁾

본고에서는 『식성』과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인물들의 시선과 응시를 시점과 서술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물들의 인식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인공들의 육식에서 채식으로의 식성 변화가 인물간의 상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작가의 의도나 작품 형상화에 나타난 미적 원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2.1. 시선과 인식의 한계

라캉에 의하면 바다위에 떠 있는 깡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듯이 그 깡통도 나를 빛의 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 모두가 위치해 있는 그 점으로부터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내가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와 나도 보여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서술을 통해서 이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식성』에서 언니가 고기를 탐하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 “광채를 발하는 눈빛”으로 “관에서 죽은 아이의 심장을 파먹”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굶주림에 지친 짐승이 먹이 앞에서 탐욕스러움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나’의 표현에 따르면 언니는 탐욕스러울 정도로 육식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아기 때는 이가 나고도 우유를 고집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영어로 쓰여진 캔들에서 고기가 든 것을 골라낼 정도로 육류를 찾아내는데 본능적이었으며, 초등학생 때는 자신이 원하는 고기를 먹을 때까지 아버지

10) 자크라캉, 권택영 외 역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4, 186~210쪽.

11) 위의 책, 224~225쪽.

병원에서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 때는 집에서 고기를 혼자 구워먹을 정도로 육식에 집착하는 인물이다. ‘나’에 의해 서술되는 언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언니가 아기 때 우유만 먹다.
- ② 언니가 고깃덩이가 든 캔을 골라내다.
- ③ 언니가 오피스텔에서 혼자서 고기를 구워서 집어먹다.
- ④ 언니가 고기집에서 혼자서 4인분을 먹다.

언니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먹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 중에서 ③과 ④는 고기 먹는 행위를 고기를 구워먹다, 고기를 집어먹다, 고기를 잘라먹다로 표현한다. ‘먹다’는 [+행위], [+지속]의 자질동사이며, 단일형태로 쓰일 경우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뱃속에 들여보내는 행위에 그친다.¹²⁾ 그런데 집다, 자르다와 만나면 대상에 적극적 행위를 가하며 동물의 음식섭취 행위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먹다 동사의 자질인 [+행위], [+지속]이 강조되어서 부정적인 정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①, ②의 경우 ‘나’는 “슬픈 짐승”이나 “번뜩이는 눈빛”처럼 ‘고기만’ 골라서 먹는 언니의 표면적인 외향 묘사를 주로 한다. 그런데 ③과 ④로 진행될수록 언니가 먹는 모습을 “죽은 아이의 간을 파먹는”, “속이 느물거리고 구역질나는” 등의 혐오스러운 감정상태를 드러낸다.

『채식주의자』의 ‘나’가 바라본 아내도 육식을 즐겨하던 인물이다. ‘나’는 채식주의자로 변하기 전에 아내의 식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① 아내는 결혼 전부터 식성이 좋았다.

12) 김은미, 『“어 먹다”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어문학』 vol.15, 건국대국어국문학회, 1991, 639쪽.

- ② 아내가 갈비를 조리하다.
- ③ 아내가 생닭을 토막내서 요리하다.
- ④ 아내는 생활력이 강하다.

여기에서 아내의 식성은 육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에서 식성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②와 ③이다. ‘나’는 거침없이 갈비를 조리하고 생닭을 요리하는 등의 육류를 다루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의 식성이 정상적이었음을 서술한다. 그리고 그 식성은 건강한 생활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등가를 이룬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로 변한 현재의 아내는 육식을 섭취하지 않고 생활에 대한 면역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성』의 ‘나’와 『채식주의자』의 ‘나’가 언니와 아내의 모습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이들이 왜 육식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식성에 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관심 갖기 보다는 어느정도 육식에 집착했는지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나’가 언니와 남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한계를 갖는 것과 관련된다.

『식성』에서 ‘나’의 언니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정서적 거리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언니를 지칭할 때 언니라는 표현보다 ‘그녀’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언니’라는 호칭은 친족어휘로 사용될 경우 주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형(兄)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일반어휘로 사용될 경우에는 여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위인 여자를 높이거나 정답게 부르는 말이다.¹³⁾ 친족어휘로 사용되든 일반어휘로 사용되든 언니라는 호칭이 지니는 기본적인 공통점은 ‘정다움’이다. 정다움은 정서적 친밀감이 전제되어

13) 조항범, 『국어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1996, 270쪽.

야 한다. 반면에 그녀는 3인칭 대명사로 화자, 청자 이외의 제3의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나’가 언니를 그녀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만큼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채식주의자』의 ‘나’도 『식성』의 ‘나’처럼 서술대상과 거리감을 갖는다. 아내와 중매 결혼한 ‘나’가 아내를 선택한 이유는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가 열등감이 들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나’가 보기에 평범했던 아내가 특이한 여성으로 변하자 이에 거리감을 갖고 수용을 거부하게 된다. ‘나’는 아내가 육식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꿈’때문이라는 것을 아내에게 들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아내의 꿈이 아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들어가지 못함, 알 길 없는, 알고 싶지 않은 꿈”을 피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내와의 거리감은 지속된다.

『채식주의자』의 ‘나’인 남편이 아내와 사이에 지니는 거리감은 정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부재(不在)로도 이어진다. 아내의 가족들 모임에서 장인이 아내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고 하자 아내가 자신의 손목을 긋는다. 이때 나서서 아내의 상처를 처리한 사람은 ‘나’의 동서이다. 동서가 아내의 상처를 지혈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동서가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처리했다고 서술한다. 보통의 남편 같은 경우 아내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전면에 나서서 위기상황을 제거하는 것과 달리 ‘나’는 상황을 방관하며 지켜보는 데 그친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태도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드러난다. ‘나’는 아내의 입원 다음날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오면서 그날 술자리나 바쁜 업무, 야근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병실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술한다. “아무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호를 해야 한다는 투이다. ‘나’는 남편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보다는 방관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서 벗

어난 행동을 할 때마다 아내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려기보다 현재 자신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이처럼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나’는 각각 언니와 아내를 정서적인 거리감을 갖고 서술하기 때문에 이들이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보가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편향된 시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들이 사용하는 문체이다.

- ① 그녀는 이빨이 나기 시작했을 때도 우유만 마셨다고 했다.(206쪽)
- ② 방과 후 아버지의 병원 대기실에서도 분명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203쪽)
- ③ 그녀는 혼자서 갈비 2인분을 너끈 해치우고 가뿐하게 집으로 가곤 했다고 한다.(203쪽)
- ④ 그녀는 항상 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꼬물쳐 두고 있는 것 같았다.(208쪽)
- ⑤ 막상 대학에 들어와 그녀와 둘이 자취를 하면서부터는 생판 몰랐던 타인 같았다.(209쪽)
- ⑥ 자매치고 상당히 다른 감각 기관을 지닌 우리는 어쩌면 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나누어 가진 게 없는 듯했다. (214쪽)

①에서 ③까지는 『식성』에서 ‘나’가 언니가 원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타인에게 들은 것이다. 이에 대한 서술은 ‘~고 했다’, ‘~을 것이다(~같다)’ 등의 종지사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언니의 관계를 설명하는 ④에서 ⑥까지도 추측 종지사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고 했다’, ‘~을 것이다(~같다)’ 등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언니가 고기를 먹는 행위는 분명하게 제시된다.

① 문을 열자 곧장 언니의 우물거리는 얼굴이 그대로 보였다. …(중략)…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그것도 두툽한 살점을 양념도 하지 않고 퉁퉁퉁 퉁 퉁 씹어서 말이다. 그냥 서서 대강 굽히는 대로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205쪽)

② 언니는 맛있겠다 하고는 김치나 샐러드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기 한 덩어리를 얹어 같이 익기가 무섭게 가위로 대강 잘라 먹기 시작했다. (212쪽)

언니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은 ‘나’가 들은 것이며, 언니가 고기를 먹는 행위는 ‘나’가 직접 본 것이다. 언니가 왜 고기만을 고집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식성』에서 독자에게 서술을 전달하는 ‘나’는 언니가 노력결과 고기를 먹게 된 행위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 서술자는 언니가 왜 고기에 집착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무언가 꼬물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자매치고는 나누어 가진 게 없는 듯” 하고 “자매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가진 채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나’의 인식의 한계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타자화시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서술하고 있는 시선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채식주의자』의 ‘나’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의 ‘나’는 『식성』의 ‘나’와 달리 아내의 식성 변화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머뭇거림이 없는 어휘를 사용한다.

①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10쪽)

② 오직 한 가지 아내에게 남다르다고 할 만한 점이 있다면 브레이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략)… 잠시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태도

를 관찰했다.(11쪽)

③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낯설었다.(18쪽)

④ 뜻밖이었다.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다. 저렇게 비이성적인 여자였다니.(20쪽)

⑤ 한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 (33쪽)

⑥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37쪽)

⑦ 놀람이나 당혹감 보다 강하게,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55쪽)

①에서 ⑦까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는 매력, 단점, 관찰, 함정, 설득 등의 추상명사나 이기적, 비이성적, 혐오감 등의 명사화된 감정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대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성적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가 냉철하고 이지적인 인물로 판단된다.¹⁴⁾ 그에 따라 ‘나’에 의해 이루어진 서술이 신뢰성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은 『식성』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식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식성이 변한 후 모습이나 그로인한 행위에 대한 ‘나’의 느낌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식성과 함께 변한 아내는 ‘나’가 원하는 모습에서 비껴있기 때문에 ‘나’의 시각과 그에 따른 가치판단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서술자인 ‘나’의 인식단계는 스토리의 태도와 연관을 갖는다. 화자(서술자)가 속하는 서술수준, 화자의 스토리 참여, 그의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화자의 신빙성은 독자가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정도나 그 스토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14) 문체와 소설 속 인물의 인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황도경,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21~24쪽 참조.

인이다.¹⁵⁾ 『식성』과 『채식주의자』 모두 ‘나’는 주인공들의 인식변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의 원인은 ‘나’의 의도적인 거리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 거리감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가 주체를 타자화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식단계까지만 경험했기 때문이다.

『식성』의 ‘나’와 『채식주의자』의 ‘나’가 각각 언니와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서술했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에 부딪혔다면, 자신들이 보여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응시하려고 노력한 언니와 아내는 인식의 전환과 확장을 경험한다.

2.2. 응시와 인식의 확장

『식성』에서 ‘나’는 언니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4인분을 거의 혼자 해치웠는데도 트림은 커녕 박가스 한 병 마신 사람보다 더 가뽀”해 보이고, 그런 모습에서 “짐승 냄새”가 난다고 혐오스럽게 묘사한다. 그래서 언니는 자신의 식성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유학 후에 식성이 변하고 절로 들어간 후에 언니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보통사람과 달리 고기에 집착한 행위와 타인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있었음을 밝힌다. 언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병자처럼 거부되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다른 음식은 모두 허접때기 같고 고기만이 음식 같았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고기만이 음식 같았다고 한 것은 고기 즉 귀한 음식이 갖는 특권을 일찌감치 감지했기 때문이다. 언니는 고기를 비롯한 귀한 음식 앞에서는 늘 젓가락을 먼저 놀렸고 그래서 눈총을 받으며 자랐다.

15) S.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140쪽.

① 밥상 위에 오른 김치찌개에서 돼지고기만을 뒤져 먹는 그녀, 떡국이 올라도 그 위에 얹힌 양념고기만 덜어 먹고 손가락을 놓아 버리는 그녀.(201쪽)

② 딸만 둘 낳은 죄책감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지만 생선 한가운데로 파고드는 언니는 항상 손등을 맞곤 했다. (201쪽)

③ 1년에 갈비찜을 하는 날은 아버지 생일뿐이고 전기 통닭구이 한 마리가 대단한 외식이었던 시절, 언니의 식성은 곤란하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202쪽)

음식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계급과 사회계층의 층위를 형성한다. 귀한 음식은 그 희소성 때문에 귀한 사람 즉 권력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고기만을 선호한 언니는 고급의 품질요구를 동반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자신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동일시한 셈이다.

그런데 언니는 언제 어디서든 육류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미국에서 식성변화를 겪는다. 육식을 마음껏 섭취하며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가족들의 믿음과 달리 언니는 “미국은 불행한 나라”라며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언니가 육식거부자로 식성이 변하고 난 후 자신의 식성변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① 어떤 남자가 자신의 정액을 그대로 마셔 버리라고 해서 꿀떡 삼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든 단백질만 입 안에 들어가면 울려 버린다고 했다.(216쪽)

② 한동안은 기숙사 방문을 잠그고 있었어. 나가기만 하면 누린내가 코를 찌르고 강의실엔 연기처럼 피 냄새가 어려 있고.(217쪽)

언니는 미국에서 한 외국인의 정액을 마시고 난 후부터 육식거부자로

식성이 전환된다. ‘나’의 서술에 의하면 언니는 그 전에도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그 일을 별거 아니라고 시큰둥하게 여겼다. 그런데 유독 미국에서 한 남자와의 성관계 후에 식성은 물론 삶의 방향까지 달라진 것은 충격과 함께 인식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녀가 마신 정액은 단순한 성관계 후에 남성의 생식기관을 통해 배출된 액체가 아니라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¹⁶⁾ 그리고 그 남성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로 이어지고 동시에 정액이라는 단백질 성분과 육식이라는 등가의 관계를 도출하게 된다.

언니는 외국인 남성의 정액을 삼키기 전에는 육식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고기 앞에서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먹어대고 사람들이 괴물 쳐다보듯 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경험은 완벽한 음식이라고 믿었던 육식이 사실은 권력자가 피권력자에게 행하는 가학적인 행위와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육류의 본고장에서는 타자일 수밖에 없는 언니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그를 통해 응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언니는 육류를 선별하는데 동물적일 정도로 뛰어났고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도 정신보다는 몸에서 먼저 변화를 느꼈다. 언니는 자신의 변화를 ‘나’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슬픔이니 즐거움이니 감정에는 무딘” 반면 “몸은 아주 빠”르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몸의 변화가 정신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몸의 변화가 극단에 서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육식을 지나칠 정도로 선호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행위는 타자와의

16) 언니의 정액 섭취는 간접살인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의 성관계에서 섹스 상대자를 죽임으로써 쾌락을 얻는 변태성욕을 쾌락살인이라고 하는데 여성에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액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간접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성현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회화의 수용, 『비교문학』 vol.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415쪽 참조.

관계 형성에서 불안정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학가기 전에는 자신을 동물 보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해야 했고, 육식거부자가 된 후에는 타자와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야 했다.

『채식주의자』의 아내의 서술에도 『식성』의 언니와 마찬가지로 타자화 즉, ‘보기’와 ‘보여지기’ 라는 태도가 존재한다. 『채식주의자』에서 아내의 응시는 ‘꿈’과 독백¹⁷⁾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내는 그녀가 꾸 ‘꿈’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시각의 변화가 드러난다. 아내의 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수백개의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걸려있는 숲에 가다. 그곳에서 피 웅덩이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다
- ② 어둠속에서 삼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보다
- ③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날카로운 손톱 등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보이다

아내의 꿈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짐승(고깃덩어리), 살해, 피, 날카로움(칼), 눈’ 등이다. 이것은 인간이 육류를 획득하고 손질하는 과정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즉 육류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나 문제의식이 없으면 육식을 위한 일련의 손질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아내의 꿈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감각적이면서 원체험의 공포로 표현된다.

- ①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중략)…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18~19쪽)

17) 『채식주의자』는 ‘나’인 남편의 서술이 주를 이루고 아내가 육식을 거부하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세 번의 꿈 내용과 세 번의 독백이 아내에 의해 서술된다.

② 삼이었어. 그것만은 확실해. 커다란 흡삼으로 머릴 쳐서 죽였어. 둔중한 울림, 금속과 머리가 부딪치던 순간의 탄성...(중략)…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 꺾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36~37쪽)

③ 꿈에 누군가의 목을 자를 때, 끝까지 잘리지 않아 덜렁거리는 머리를 잡고 마저 칼질을 할 때, 미끌미끌한 안구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 …(중략)…입안에 침이 고여. (42쪽)

아내의 꿈속에 나온 것들은 시뻘건, 붉은 피, 날고기의 감촉, 둔중한 울림, 미지근한, 미끌미끌한 등의 시각, 촉각, 청각, 미각등과 관련된 감각적 자극이다. 이러한 감각자극은 객관적·외향적·현실적·논리적이며 의식과 관련된 기술적 반응으로서의 남성의 반응과 대조되는 것으로 주관적·환상적·감성적이며 잠재의식과 관련된 미적 반응이다.¹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본다’는 응시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¹⁹⁾ 특히 처음 꾸는 꿈이 “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여있는 물인 웅덩이는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내면과의 만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곳에 피가 고여있고 내 얼굴이 그곳에 비친다는 것은 자기 환멸과 잔인성을 의미한다. 아내는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수없이 봤던 얼굴인데 내 얼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보던 모습이 아닌 다른 자기를 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깨어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신을 타자화할 수 있는 꿈을 통해서 인식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아내의 서술은 꿈 외에 독백으로도 진행된다. 독백에서는 아내가 육식

18) 슬라미스 화이어스톤, 김예숙 옮김,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180쪽.

19) 아내가 ‘꿈’을 통해서 인식을 달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라캉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소멸되는 것이 꿈의 영역에서 이미지들을 통해 ‘보여준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자크라캉, 앞의 책, 198쪽 참조.

을 거부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진다. 아내는 아홉살 때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흰둥이에게 종아리를 물어 뜯긴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오토바이에 흰둥이를 묶고 동네 일곱 바퀴를 돌게 한다. 달리다 죽은 고기가 맛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아내는 흰둥이가 혈떡이며 달리다가 “눈꺼풀이 열리고, 눈에 핏물이 고인” 채 죽어가는 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국밥 위에 흰둥이의 눈이 어른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릇을 모조리 비웠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그때의 체험이 공포로 각인되어 남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체험적 자아가 꿈에서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눈에 관한 서술에서 드러난다. 아내는 꿈속에서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자신을 보던 흰둥이의 눈의 이미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남편인 ‘나’는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성적인 신호로 느끼다가 얼마 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내의 독특한 버릇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아내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육식거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 아내는 “예전에는 명치 끝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진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이다”라고 설명한다. 아내는 이제껏 섭취한 육류를 음식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고 남편의 서술과 달리 아내는 이전부터 육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식성』의 언니와 『채식주의자』의 아내가 시선에서 응시로의 변화가 온 이유는 타자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식성』의 경우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정액 섭취를 통해서, 『채식주의자』는 자기반성으로 상징되는 꿈을 통해서 육식이 지닌 폭력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의식, 세상에 대한 환멸 등을 인식한다.

3. 음식과 성별권력의 상관관계

『식성』의 언니는 육식거부자로,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채식주의자로 변한 과정과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식양상을 자크 라캉의 시선과 응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식성』과 『채식주의자』 주인공들의 육식에서 채식으로 식성 변화 원인을 성별권력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주인공들이 권력을 넘어서 폭력으로까지 상징되는 육식위주 식생활에 대응하는 자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최근 육식위주의 식습관이 문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채식이 제안되기도 한다. 그런데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주인공들의 식성변화와 그로 인한 채식의 수용과정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다.²⁰⁾ 『식성』의 언니는 외국인 남자의 정액이 상징하는 폭력성을 경험한 후에,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아버지가 지닌 권력이 잔인성과 등가리는 것을 경험한 후에 식성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육식에 담긴 성차별 수단과도 상관관계를 갖는다.

중세 유럽의 전사들, 근대 초기의 지주층, 신세계의 탐험가와 발견자들, 애팔래치아 트레일의 개척민들 대평원의 카우보이들은 육식을 즐겼는데 특히 구운 요리를 즐겼다.²¹⁾ 전사, 지주층, 탐험가, 개척자, 카우보이 등에서 연상되는 공통점은 공격, 강인함, 남자다움, 권력이다. 그래서 같은

20) 대안적 음식문화로 제시되는 채식의 이유로는 동물권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 육류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고려, 육류를 덜 소비할 경우 남은 곡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경제적 관점, 건강의 이유, 동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적인 영향 등 다양하다.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일상과 음식』, 한울, 2009, 297쪽 참조. 그런데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주인공들은 위에 제시된 일반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21) 제레미 리프킨, 앞의 책, 285쪽.

육류여도 이들이 삶은 요리보다 구운 요리를 선호한 이유는 붉은 고기에 서 흘러내리는 피가 체력, 공격 등 남성적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의성 때문에 오늘날에도 육식은 성차별수단으로 사용된다.

3.1. 육식과 성별권력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치가 하락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제력과 파워의 통제권이 부족하고 남자들보다 도덕적·육체적으로 하위로 여겨진다.²²⁾ 『식성』의 언니와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모두 여성이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과 아내라는 위치에 있다. 딸과 아내는 같은 여성이지만 가족내에서 책임감의 정도면에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보다 강하다. 마찬가지로 『식성』보다 『채식주의자』에 음식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권력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식성』에서 육류를 동물적인 감각에 가깝게 감지하고 육식을 선호했던 언니의 식성은 성정체성과 관련시킬 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가깝다.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년기시절, 언니는 또래 여자아이들 처럼 립스틱이나 귀걸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오직 고기만을 탐한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폭식에 가까운 정도로 섭취했는데²³⁾ 그러한 행위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볼 수 있다. 잘 먹는다는 것은 힘의 궁극적인 표현이며 그 사람이 지닌 힘을 상징한다.²⁴⁾ 언니는 매번 어머니에게 손등을 맞거나 사람들에게 기이한 취급을

22) 캐틀M. 코니한, 김정희 옮김,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1999, 206쪽.

23) 『식성』에서 언니는 초등학교 때도 혼자서 갈비 2인분을 너끈 해치우고, 성인이 되어 서도 갈비 4인분을 혼자서 가뿐하게 해치우는 것으로 표현된다.

24) 스투어트 리 엘런, 정미나 옮김, 『악마의 정원에서』, 생각의나무, 2005, 205~206쪽.

받으면서까지 육식에 집착한다. 그 집착은 아버지의 직장인 병원에서 고기를 사줄 때까지 막무가내로 버틴다든지, 어머니가 동생인 '나' 몰래 정기적으로 경양식집을 데리고 다닌 것²⁵⁾이 그 예이다. 언니의 이러한 집착 행위는 육류에 함의된 특권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니가 지닌 특이한 식성 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또다른 점은 공부를 썩 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언니가 욕망하는 권력과 관계를 갖는다. 서술자인 '나'도 언니가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오면 특이한 식성쯤은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님도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는 딸의 유학을 적극 지지한다. 이것은 육식 = 학력 = 권력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갖는다.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다는 것, 학문의 최고 단계인 박사 과정이라는 것은 권력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은 경제적 생산력으로 인정받고 있다.²⁶⁾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지식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지식을 기반으로 세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과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모두가 사회구조로 볼 때 하급직에 속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픽학원의 보조강사를 했으며 현재는 출판만화의 말풍선에 대사를 넣은 하청일을 아르바이트로 한다. 『식성』의 언니가 지식을 생산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과 달리 『채식주의

25) 통계에 의하면 81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식비 지출 현황 중 양식점의 구성비는 5.6% 정도이다. 이는 같은 해 60~70%에 이르는 한식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한식보다 비싼 양식 가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외식가구자들은 아파트 거주자, 고학력 주부, 취업 주부 가구 등 고학력과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조근태, 『우리생활100년·음식』, 현암사, 2001, 337쪽 참조. 『식성』에서 언니가 정기적으로 경양식집을 다니던 때가 70년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언니는 육식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특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셈이다.

26) 카린 크노르-세티나, 윤도현 옮김, 『지식사회』,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한울, 2003, 200쪽.

자」의 아내는 지식생산자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한다. 이것은 동물중심 경제의 주요한 특징인 엄격한 음식 피라미드²⁷⁾와도 같은 구조를 이룬다. 동물중심 경제의 사회적 피라미드의 최상위에는 남성이 포진하는 특징을 보이며 여성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일을 한다. 「채식주의자」의 아내가 남편이나 「식성」의 언니처럼 지식생산자로 자리하지 못하고 비교적 하급노동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중심 경제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하위계급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의 이러한 수동성은 공간성과 그 역할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내가 채식주의자로 변하기 전에 주로 머물렀던 공간은 부엌이다. 그리고 부엌에 머물 때 아내의 역할은 남편인 '나'나 가족들 모임을 위해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아내가 부엌에서 조리한 음식들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조리법이다. 생강과 물엿으로 쥬 삼겹살, 샤브샤브용 쇠고기를 떡이나 전처럼 만든 특별식, 콩나물 비빔밥, 닭도리탕 등으로 이러한 요리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친화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피지배계급에 속한 여성들의 노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하급의 조리법이다.²⁸⁾ 반면에 「식성」에서 언니는 부엌에서 조리하는 음식 제공자가 아닌 음식을 대접받고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행위가 강하다. 아버지 병원 근처에 있던 갈빗집, 주기적으로 엄마와 함께 가던 경양식집, '나'와 외식을 위해서 찾곤 했던 무슨무슨 원조집 등 언니는 조리자보다 소비자로 식당에 위치한다. 「식성」에서 언니가 부엌에서 조리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공간이 오피스텔이

27) 제레미 리프킨, 앞의 책, 287쪽.

28) 이러한 하급의 조리법은 지배계급에 속한 여성들이 여가시간을 아이들을 돌보고 문화자본에 투자하는 것과 대립을 이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빼에르 부르디외, 최중철 옮김, 『구별짓기』, 새물결, 2006, 340쪽 참조.

며, 자신이 먹기 위한 고기를 굽는 장소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의 아내가 조리제공자로서 노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식성」의 언니와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같은 여성이지만 식성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음식과 성별권력의 상관관계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3.2. 채식과 여성의 정체성

「식성」에서 언니가 육식의 폭력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미국에서 한 남자의 정액을 삼키고부터이다. 육식을 선호했던 언니가 남성성을 대표하는 정액을 삼키고 육식 거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육식이 지닌 폭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니가 경험한 폭력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육우기지화와 관련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민족국가들과 다국적기업들은 중앙 및 남북 아메리카를 하나로 아우르는 단일 축산 단지 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이 육우기지화는 쇠고기 생산과 유통을 위한 단일 세계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체계적인 노력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핵심단계로 삼고 있는 것은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개량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육되며 핵심 생산 국가들에서 수입된 곡물을 먹고 국제 표준에 따라 도축되며 육우의 원산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소비되는 표준화 작업이다.²⁹⁾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스템으로 전세계의 소비문화를 획일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음식도 서구문화의 전략에 따라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식성」에서 언니가 육식문화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육식거부자가 된 것은 음식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전략화하고 전세계인의 입맛을 획일화 하려는 음식문화의 폭력을 몸으로 감지했기 때문

29) 제레미 리프킨, 앞의 책, 176~179쪽.

이다.

「채식주의자」의 아내가 육식의 폭력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가부장제적인 가족단위에서 행해지는 폭력을 통해서이다. 아내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문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개를 딸에게 먹인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자란 자식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어머니도 딸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니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잡아먹을 거다”라고 한다. 이것은 육식이 갖는 공격성과 채식이 갖는 수동성과 관련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이 속도나 운동성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수동적이고 정적인 식물은 굶뜨고 느린 존재로 인식되고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언니와 아내가 식성변화를 겪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식성」의 언니는 육식을 거부하게 된 후에 절로 들어간다. 그녀는 육식을 선호할 때도 자신의 의지대로 육식만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육식을 거부하게 될 때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 반면에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흰둥이를 먹은 이후 무의식적으로 육류를 거부해왔는데 현실에서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섭취했다. 그리고 꿈을 계기로 채식주의자가 된 후에는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만 이상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러한 차이는 「식성」의 언니는 자기치유 가능성으로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자기파괴로 귀결된다.

「식성」의 언니가 자기 치유의 공간으로 선택한 곳은 절이다. 절은 육식을 피할 수 있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언니는 절에서 “평소 같으면 구질구질해서 싫다고 했을 요와 이불”이 있는 쓸렁한 방에 기거하며 단순한 잡일을 맡아서 한다. 언니가 특권을 행사하던 육식위주 식생활 때와 상반되는 상황을 기꺼이 수용한 이유는 절에 들어감으로써 “속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졌기” 때문이다. 절은 육식의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썸이고, 이를 간파한 언니는 자기판단에 의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반면에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타인과 단절된 행동을 보인다. 남편인 '나'의 회사간부 모임에 젓꼭지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블라우스에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참석하고, 덩다는 이유로 상체를 벌거벗은 채 음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극단은 자신의 손목을 긋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식구들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된 후에도 치유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채식주의자」는 아내가 병원 분수대에서 상체를 벌거벗은 채 새를 물어뜯는 이상행동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공간인 병원에서 자기파괴를 행하고 있는 썸이다. 특히 아내가 작은 새를 물어뜯는 행위는 이제껏 육식을 거부한 행동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아내에 의해 물어뜯긴 작은 새는 아버지에 의해 잔인하게 죽어간 흰둥이와 등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상 김이태의 「식성」과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음식과 성별 권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음식은 단순한 일차적 섭취물이 아닌 문화적 기호와 다양한 형태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식성」과 「채식주의자」에 제시된 인물들의 시점과 서술을 통해서 인물들의 인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인물간의 인식 상태는 자크 라캉의 시선과 응시의 개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식성」과 「채식주

의자』의 주인공들이 육식에서 채식으로 식성이 변한 이유가 음식과 성별권력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식성」의 언니는 육식이 권력자들의 음식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육식만을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을 계기로 육식위주의 문화가 지닌 폭력성을 인식하고 육식을 거부한다.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죽인 아버지의 폭력성이 육식으로 각인되어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다가 꿈을 계기로 거부하게 된다.

「식성」과 「채식주의자」의 공통점은 각각의 주인공인 언니와 아내가 육식하는 자가 권력자라는 것과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육식거부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식성변화 전에는 육식과 성별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성」의 언니는 육식을 통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적극성을 보인 반면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폭압을 감지하면서도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식성변화 후에는 「식성」의 언니는 자신의 치유공간이 될 수 있는 절을 택하지만 「채식주의자」의 아내는 치료공간이 되어야 할 병원에서 자기과괴를 행한다.

두 작품 모두 음식문화와 성별권력과의 관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지배층의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부인하고, 수평성에 대한 경외심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이태, 「식성」, 『제 2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97.

한강,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 국내논저

구자희,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231쪽.

김은미, 「“어 먹다”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어문학』 vol.15, 건국대국어국문학회, 1991. 639쪽.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일상과 음식』, 한울, 2009, 297쪽.

성현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회화의 수용」, 『비교문학』 vol.30, 한국비교문학회, 2003, 415쪽.

유승준, 「기름기로 충만한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토약질」, 『사랑을 먹고 싶다』, 작가정신, 2004, 69쪽.

조근태, 『우리생활100년·음식』, 현암사, 2001, 337쪽.

조항범, 『국어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1996, 270쪽.

한귀은,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vol.43, 배달말학회, 2008, 289~317쪽.

황도경, 『문체로 읽는 소설』, 소명출판, 2002, 21~24쪽.

———, 「푸른 꽃」, 혹은 예술과 욕망의 시원」, 『2005년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5, 359~360쪽.

허윤진, 「열정은 수난이다-채식주의자 해설」,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29~233쪽.

3. 국외논저

로이 스토폴, 강주헌 옮김, 『권력자들의 만찬』, 넥서스BOOKS, 2005, 75쪽.

베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새물결, 2006, 340쪽.

S.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140쪽.

스튜어트 리 앨런, 정미나 옮김, 『악마의 정원에서』, 생각의나무, 2005, 205~

206쪽.

- 슬라미스 화이어스톤, 김예숙 옮김,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180쪽.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학』, 민음사, 1999, 184쪽.
자크라캉, 권택영 외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4, 186~210쪽.
제레미 리프킨, 신현승 옮김, 『육식의 종말』, 시공사, 2002, 280~281쪽.
카린 크노르-세티나, 윤도현 옮김, 『지식사회』,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2』, 한울, 2003, 200쪽.
캐롤 M.코니한, 김정희 옮김,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1999, 206쪽.

Abstract

Cultural symbolism between food and authority shown in fiction

— with a focus 『Food habit』 written by Kim I tae and

『The vegetarian』 written by Han Kang

Kim, Jae-kyeong

As mentioned above, you have looked into relation between food and authority to be given to 『food habit』 of Kim I tae and 『the vegetarians』 of Han Kang. Food is not primary in take substance but is used nowadays to symbols of the cultural taste and various forms of symbol. Specially, meat-eating culture has brought out the dichotomy composition such as androcentric power and subordinate position of women.

This paper has looked into visual art theory of Jacques Lacan in order to inquire the relation between meat-eating and authority to be given to 『food habit』 and 『the vegetarian』.

Jacques Lacan explains a category of the examples with a concept called gaze and stare. The gaze is a step having a limit of the recognition the subject just can read the object but cannot know that other can read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the stare is a step extending the recognition of the subject can not only read the object, but also recognize that other can read them, likewise.

The younger sister who is ‘me’ in 『food habit』, and the husband who is ‘me’ in 『the vegetarian』 read their sister and wife only on their places so stay at the step that they cannot know why they were changed to a vegetarian carry the limit of recognition.

However, the elder sister of 『food habit』 and the wife of 『the vegetarian』 are extensible of their recognition as they go forward to the steps of stare to read themselves standing on others’ places.

Moreover, their stay at their gaze and expansion of stare are connected to recognition or not about meat-eating and authority, meat-eating and identity problem.

The sister of 『food habit』 is a person studying a doctor course which is the highest degree of study, and the wife of a vegetarian is engaged in a simple low class position. Their present professional states are connected to meat-eating and the authority aspects.

The elder sister of 『food habit』 is presented as a sexless woman like the authorities that she has, as experts are producing knowledge over the range of whole society, and the world is proceeded with the base of the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he wife of 『the vegetarian』 stay at the lowest in home as like she is engaged in lower-class labor, and appears with figure of the typical popular class.

By the way, both of these women recognize the ‘identity’ called woman while realizing the oppression that meat-eating has.

While the elder sister of 『food habit』 i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base of meat, she recognizes the violence of meat-eating as she recognizing the meat standardization work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symbolized semen intake and standardization of international food culture through it.

The wife of 『the vegetarian』 recognize violence in our society relating the figure of her father who killed cruelly the dog which grew in home in her childhood, her husband who regards meat-eating as right, and eyes of surrounding people with the image called murder.

In addition, it ends in they deny the patriarchy value system of the ruling class, and support feminine power and reverence regarding the nature that their food habits changed into vegetarians.

Key words : food, meat-eating, vegetarians. view point, gaze, authority, identity.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